

## 벽을 깨는 사람

- 황종연 목사 / 2003. 1. 24 -

사람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말투와 행동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중고등부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4천명에 가까운 그들이 함께 모여 그들만의 세계를 이루며 마치 여름 냇가의 송사리 떼처럼 몰려 다녔습니다.

하나하나의 얼굴에는 그들만의 자유로움과 가능성이 담겨있었으며 젊음의 역동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와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며 우리를 부르는 영혼들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낀 것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대차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과 나는 시간곡선과 생각,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인가를 주제로 대화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눈높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이해하고, 그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나에게서는 타문화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 했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버렸던 나와는 다르게 이미 저 멀리까지 달려가 버린 저들의 세계는, 또 하나의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선교는 우리 앞에 있는 무수한 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있지만,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한계 앞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벽들을 깨뜨려 가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벽, 다른 사람 사이의 벽,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확인되는 그러한 벽들을 깨야 합니다.

벽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벽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벽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벽을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선교지로 출발하는 한 신임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욕심과 바라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늘 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부담스러웠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발 좀 놔 달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당신을 거절 했었지요.

그러나 주님!

전 행복하지도 않았고 저 자신에게도 만족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무엇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쁨도, 소망도 없는 삶 속에서 당신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했던 상황 속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더 커다란 언어와 문화와 굳어진 관습과, 철통같은 종교의 벽을 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 떠나는 선교 사임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갈채를 보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